

고운(顧雲)이 최치원에게 준 송별시

「고운편」에 대한 진위 고증

- 「고운편」과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한 한중 연구사를 겸하여 -

이 황 진

(중국광서사범대학교)

1. 서론

최치원이 당나라를 떠날 때 고운(顧雲)이 석별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어주었다고 하는 송별시 두 편이 한국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다.¹⁾ 그 하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권46 열전 “최치원조”(이후 「최치원전」이라 칭함)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또 같은 해에 과거에 함께 급제한 고운(顧雲)과 친하게 지냈는데, 귀

1) 고운(顧雲)은 최치원의 호인 고운(孤雲)과 음이 같으므로 독자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고에서 참고한 논저 가운데 중국어로 된 논저의 경우에는 저자 옆에 (中)이라 표기할 것이며, 인용하는 내용은 필자가 번역한 후 인용한다.

주제어: 최치원, 재입당 시기, 고운의 「고운편」, 우무릉의 「고운」, 진위 고증
崔致遠, 再入唐時間, 顧雲 《孤雲篇》, 于武陵 《孤雲》, 眞偽考辨

국하러 하자 그가 시를 지어 송별하였으니, 대략 이러하였다. “내 들으니 바다에 금자라가 셋이 있어, 금자라 머리에 이고 있는 산 높고도 높구나, 산 위에는 구슬 궁궐 자개 대궐 황금의 전각이요, 산 아래에는 천리만리의 넓은 파도라네, 그 곁에 한 점 계림이 푸르네, 금오산 정기로 뛰어한 인물을 낳게 했네, 열두 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그 문장 중국을 감동시켰네! 열여덟 살에 글씨를 하는 곳에 나아가, 한 화살로 금문책을 쏘아 뚫었네!”²⁾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의 송별시는 이인로의 『파한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2) 고향에 돌아옴에 미처 과거에 함께 급제한 고운(顧雲)이 「고운편(孤雲篇)」을 지어 보내어 말했다.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아, 달을 짝하여 인간에 이르렀네, 배회하며 가히 머물 곳이 없어, 막막하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네!” 공이 또한 자술하여 말했다. “무협의 겹쳐진 봉우리의 나이(12세)에 미미한 몸으로 중화에 들어가고, 은하수가 펼쳐진 별자리의 나이(28세)에 비단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다.”³⁾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수록된 (1)의 송별시를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 권22 「당서불립최치원열전의(唐書不立崔致遠列傳議)」에서 “동년 고운이 「유선가」를 최치원에게 주었다(同年顧雲贈儒仙歌)”라며 「유선가」라 칭하였는데 현재 학계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칭하고 있다. 그리

2) 又與同年顧雲友善，將歸顧雲以詩送別，略曰：“我聞海上三金龜，金龜頭戴山高。山之上兮，珠宮貝闕黃金殿。山之下兮，千里萬里之洪濤。傍邊一點雞林碧，鰲山孕秀生奇特。十二乘船渡海來，文章感動。十八橫行戰詞苑，一箭射破金門策。”(金富軾著，金鍾權譯，『三國史記』下，明文堂，1988, p. 534)

3) 及還鄉同年顧雲賦孤雲篇以送之云：“因風離海上，伴月到人間。徘徊不可住，冥冥又東還。”公亦自敘云：“巫峽重峯之歲，絲入中華，銀河列宿之年，錦還故國。”(李仁老，『破閑集』卷中23則，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편, 『高麗明顯集』第二冊, 1986, p. 95)

고 『파한집』에 수록된 (2)의 송별시는 이인로의 글에 의거해 「고운편」이라 칭하고 있다. 이 두 편은 시는 당조(唐朝)부터 청조(清朝)에 이르기까지 『전당시(全唐詩)』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한국 문헌을 통해서만 전해져 왔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두 편은 송별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적이 없으며, 중국에서도 역시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만 학자 사해평(謝海平)은 (1)의 제목을 「유선가를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게 줌(儒仙歌送崔致遠歸新羅)」이라 달고 『당대 시인과 재당 외국 문인의 교류(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에 수록하였으며,⁴⁾ 중국 학자 위옥승(韋旭升)은 (2)를 「고운편」이란 제목으로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에 수록하였고,⁵⁾ 진상군(陳尙君)은 이 둘을 「신라로 돌아가는 최치원에는 줌(送崔致遠西游將還)」과 「고운편」이라는 제목으로 『전당시보편(全唐詩補編)』 권 34에 수록하였다.⁶⁾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에서도 이 시들을 고운의 시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편은 시는 최치원의 생애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진위 여부를 최대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즉, 「유선가」는 최치원에 대한 최초의 전기인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삽입되어 최치원이 18세에 과거 급제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데, 이는 곧 최치원이 857년에 출생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적잖은 연구자들이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그 시기를 증명함에 있어 「고운편」을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계에서는 이 시들의 진위여부에 대한 고민이나 고증도 없이, 그냥 고운의 작품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필자는 이 두 편은 시 중 적어도 「고운편」은 고운의 작

4) 謝海平(中), 『唐代詩人與在華外國人之文字交』, (臺灣) 文史哲出版社, 1981, p. 155.

5) 韋旭升(中), 『朝鮮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 1986, p. 170.

6) 陳尙君輯校(中), 『全唐詩補編』中冊, 中華書局, 1992, p. 1192.

품이 아니며, 심지어 이러한 송별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하기에, 본고에서 이를 고증하고자 한다.

고증에 앞서 고운이란 인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고운이 어떠한 인물이며 최치원과 는 어떠한 교분을 나누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하겠다.⁷⁾

고운(顧雲)의 자(字)는 수상(垂象), 사룡(士龍)이며, 지주(池州, 지금의安徽省 貴池縣) 사람이다. 당의종(唐宜宗) 대중(大中) 5년(851)에 염상(鹽商)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당소종(唐昭宗) 건녕(乾寧) 원년(894)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문에 정통하였고 수많은 저술을 남긴 만당(晩唐) 시기의 저명한 문인이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대부분 일실되어, 『전당시(全唐詩)』 권637에 시 1권(8수), 『전당문(全唐文)』 권815에 23편의 문장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을 뿐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서송(徐松)의 『등과기고(登科記考)』 권23⁸⁾ 등에 의하면 최치원과 고운은 함통15년(건부 원년, 874)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년(同年)⁹⁾이다. 또한 이 둘은 회남(淮南) 고변막부(高駢幕府)에서 함께 종사한 동료이자 막우(幕友)이기도 하다. 고운과 최치원의 교류(交遊)는 『계원필경집』과 한국 사적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7) 顧雲과 최치원의 교류(交遊) 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중렬, 『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pp. 41~45 ; 박병선, 「당대 한중 문인의 교류에 관한 연구 - 동국문종 최치원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6호, 2003, pp. 454-458 ; 이구의, 『최고운 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pp. 54-58 ; 党銀平(中), 『唐與新羅文化關係研究』, 中華書局, 2007, pp.101-104 ; 方曉偉(中),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廣陵書社, 2007, pp. 128-131 ; 姜昌求(中), 『新羅人與唐代人的贈詩研究』, 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pp. 89-92 등.

8) 徐松撰, 『登科記考』 卷23, 中華書局, 1984, pp. 867-868.

9) 여기서의 ‘同年’은 나이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2. 「고운편」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분석 고찰

「고운편(孤雲篇)」

因風離海上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떠돌아,
伴月到人間 달을 동반하여 인간에 이르렀네.
徘徊不可住 배회하며 가히 머물 곳이 없어,
漠漠又東還 막막하게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네!

고운이 「고운편」의 작자임을 인정한 후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 지어 이를 분석한 김중렬의 견해가 이 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김중렬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운(孤雲)을 신선으로 비유한 것은 「유선가」와 상통하는 기법으로 고운(顧雲)의 작이 분명하다. 기구는 처음 신선국 신라로 귀국할 때의 정경이요, 승구는 다시 신라에서 인간의 세계인 당으로 돌아온 것을 이룸이며, 전구는 당시 기울어져 가는 당나라의 정국이며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막주(幕主) 고변(高駘)의 몰락으로 인하여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한 난감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절구에서는 다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정경이 그려져 있다. ‘막막(漠漠)’이라는 두 자에서 이제는 다시 만날 기약 없는 이별임이 분명하고, ‘우동환(又東還)’에서 두 번째 신라로 귀국하는 시의(詩意)가 확실하다. 이와 같이 이 시는 고운(孤雲)이 두 번째로 당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 쓰여졌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삼국사기』 최치원조에 ‘그 후 치원은 또한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으나, 언제 갔는지는 알 수 없다(其後致遠亦嘗奉使入唐, 但不知其歲月耳)’라는 기록과 부합하며 이를 증명해 주는 한 편의 좋은 예(好例)이다. 모든 것이 인멸되어 알 길 없는 상황 속에서 고운(孤雲) 행적의 일부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고운(顧雲)은 건녕 원년(894)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고운(孤雲)은 38세였다. 그러므로 고운(孤雲)이 다시 당에 왕복한 것은 그 이전이어야 옳을 것이다.¹⁰⁾

「고운편」을 최치원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 지어 해석한 김중렬의 해석은 매우 탁월해 보인다. 김중렬의 분석과 해석처럼 「고운편」의 시어와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를 최치원의 첫 번째 귀국(884년)보다는 두 번째 귀국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기는 하다. 이재운과¹¹⁾ 강명구(姜昌求)¹²⁾ 역시 이 시를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그리고 최영성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를 지어 준 고운이 당소종 건녕 원년(894)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사신으로 간 연대가 적어도 894년 이전임을 알 수 있고, 또 최치원이 진성여왕 8년(894) 2월에는 시무책을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893년 연말쯤에 하정사로 당나라에 들어가 그 이듬해 돌아왔음이 거의 분명하다”¹³⁾며 당시 최치원의 행적과 연관시키고 있다.

방효위(方曉偉) 역시 「고운편」을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짓고 있지만, 그는 기타 연구자들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보통 최치원과 고운은 당에 있을 때 절친한 친구였으며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방효위는 “최치원은 881년 「격황소서(檄黃巢書)」를 통해 천하에 문명을 떨치게 되었지만 도리어 막부의 동료들로부터 배척과 차별을 받았는데, 그와 반대로 고운은 882년 「대고변상희중주(代高駢上僖宗奏)」을 통해 또 한 번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처지로 인해 중화(中和) 2년(882) 이후, 최치원과 고운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최치원이 귀국하던

-
- 10) 김중렬, 『최치원 문학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pp. 44-45.
 11) 이재운, 『고운 최치원의 사상과 역사인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 51 ; 이재운, 「고운의 생애와 정치활동」, 한국사학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편,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연구』, 주류성, 2001, pp. 72-73.
 12) 姜昌求(中), 『新羅人與唐代人的贈詩研究』, 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8, pp. 90-91.
 13) 최영성, 「최치원 사상 형성의 역정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10집, 1998, pp. 231-233.

88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하기에 『계원필경집』 권20에 그렇게 많은 송별시를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고운과 나는 송별시가 없는 것¹⁴⁾ 이라며 그들의 사이가 한 때 서먹해지고 멀어진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최치원이 재입당 하였을 때에는 이미 예전의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을 떨쳐버렸기에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과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아쉬움을 「고운편」에 담아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¹⁵⁾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를 893년이 아닌 894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성의 견해와 다르긴 하지만, 고운 생전이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하겠다.

이처럼 김종렬을 비롯한 적잖은 연구자들이 「고운편」을 최치원이 귀국할 때 고운이 지어준 송별시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최치원이 884년 귀국할 때가 아니라 하정사 신분으로 재입당 했던 사실과 관련지으며, 그 시기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고운편」의 작자를 고운이라 확신한 후 이를 통해 최치원의 재입당사실과 그 시기를 유추한 연구자들의 논리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만일 최치원이 하정사로 재입당 했던 시기가 고운이 사망(894년)한 후라면 이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 되며, 동시에 이 시는 고운의 시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박병선, 이구의, 당은평(党銀平) 등 여러 연구자들도 「고운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지 고운이 최치원에게 준 이러한 송별시가 있다는 정도의 소개에 그치며 별다른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는 상관없이 최치원이 884년 귀국할 당시 고운이 「고운편」을 지어준 것이라고 확신하는 논자도 있는데 이중문이 그러하다. 그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方曉偉(中), 『崔致遠思想和作品研究』, 廣陵書社, 2007, pp. 130-131 ; p. 228.

15) 위의 책, p. 131.

문맥상의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고운(孤雲)은 분명히 고변의 막부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고운편」의 창작 시기는 최치원이 28세 때임이 분명하며, 「고운편」의 바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최치원의 「자서(自序)」¹⁶⁾가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최치원의 자서는 문맥으로 보아 「고운편」에 대한 자서로 보이지만, 설사 그것이 「고운편」에 대한 자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록의 전체적인 맥락은 28세에 그가 귀국하는 상황이 확실하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¹⁷⁾

윗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종문은 「고운편」이 최치원이 처음 귀국하던 884년에 고운이 지어준 시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러하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먼저 최치원이 처음 신라로 돌아가는 것인데, 또 혹은 다시라는 의미의 ‘(우)又’란 시어가 과연 적절한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시 「고운편」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면, 『삼국사기』 「최치원전」에 수록된 또 다른 고운의 송별시 「유선가」와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도 의문이다. 즉, 고운이 두 편의 송별시를 지어준 것인지, 아니면 「유선가」와 「고운편」이 본래는 한 편의 시였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공이 또한 자술하여 말했다. ‘무협의 겹쳐진 봉우리의 나이(12세)에 미미한 몸으로 중화에 들어가고, 은하수가 펼쳐진 별자리의 나이(28세)에 비단을 입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며 이것을 「고운편」에 대한 답시로 보고 있지만, 이규보는 『백운소설』에서 이를 「유선가」에 대한 답시로 기록하고 있다.¹⁸⁾ 그렇다면 이것이 「유선가」의

16) 본래 『파한집』의 원문은 ‘自敍’인데, 이종문은 자신의 논문에서 ‘自序’라고 적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17) 이종문, 「최치원 연구(1) - 그의 재입당 여부와 한시작품의 창작 시기에 관한 고찰」, 『한문교육연구』 제13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pp. 221-222, 각주12).

18) 及將還本國, 同年顧雲贈儒仙歌, 其略曰: “十二乘船過海來, 文章感動中華國.” 其自敍云: “巫峽重峯之歲, 絲入中華.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國.”: 李奎報, 「白雲小說」, 洪萬宗編撰, 『詩話叢林』, 아세아문화사, 1973, pp. 11-14.

답시인지 아니면 「고운편」의 답시인지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두 편의 송별시를 차라리 한 편의 시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학자 진상군(陳尙君)은 “「고운편」은 『삼국사기』에 수록된 「유선가」 중의 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¹⁹⁾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거정 역시 『필원잡기』에서 이 답시를 인용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최치원의 자술이 아니라 어떠한 이가 준 글이라 하고 있다.²⁰⁾ 이는 아마도 서거정 그 자신도 이 글이 최치원의 글이라는 확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혹 그 어떤 근거에 의해 최치원의 글이 아닌 어떠한 이가 준 글이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답시의 진위 여부 자체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만일 「고운편」을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884년) 할 때 받은 송별시라고 한다면, 이는 진상군(陳尙君)의 견해대로 원래 한 편의 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 두 편의 송별시가 원래 한 편의 시였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유선가」의 경우 이를 기록한 문헌들 모두가 ‘대략 이러하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어 그 온전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없는데다가 시도 부(賦) 같은 형식을 하고 있다. 반면, 「고운편」은 온전한 오언절구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한 편의 시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과연 이 두 편의 시를 본래는 한 편의 시였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들이 본래 한 편의 시였다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위작이라고 밝혀질 경우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역시 위작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요컨대, 현재까지 「고운편」을 고운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논자는 거의 없다. 다만, 이를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

19) 陳尙君輯校(中), 앞의 책, p. 1192.

20) 唐學士顧雲送崔致遠還鄉詩, 有“十二乘舟渡海來, 文章感動中華國”之語. 又有臆言者曰: “巫峽重峯之歲, 絲入中華. 銀河列宿之年, 錦還東國.” 蓋十二而入唐, 二十八而東還也.: 徐居正, 『筆苑雜記』, 韓國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p. 6.

냐 아니면 두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냐의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 시를 최치원이 첫 번째 귀국할 때 지어준 것이라고 보기에 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르기에, 아직까지는 이를 최치원의 재입당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3.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분석 고찰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는 「고운편」이 고운의 작품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입당 시기가 고운의 사망 후라면 자연스레 이 시를 고운의 시로 인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적잖은 연구자들이 먼저 「고운편」을 고운의 시로 확신한 이후 이를 통해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를 단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보인다. 그렇다면 최치원의 재입당 시기에 대해 기타 선행연구자들은 어떻게 고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영성은 최치원이 하정사로 임명되었던 진성여왕 7년(893)에 본래의 예정보다는 늦었지만, 그래도 그 해 연말쯤에 당으로 들어가 이듬해 2월 시무책을 올리기 전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893년 완성되었다고 본 「지증대사비명(智證大師碑銘)」에 기록된 직함 ‘입조하정 겸 영봉황화등사, 전조 청대부 수병부시랑(入朝賀正兼迎奉皇花等使, 前朝請大夫守兵部侍郎)’을 제시하였다. 다만 최치원이 893년 본래의 예정대로 하정사로 재입당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직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먼저 이 비명을 완성한 후 893년 말에 하정사로 당에 다녀왔을 것으로 파악하였다.²¹⁾ 적잖은 선행 연구자들이 「고

21) 최영성, 앞의 논문, pp. 230-231.

